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1  
River & Culture



윤재득 | 담양군 문화재전문위원  
(damdooy@korea.kr)

# 담양천의 역사와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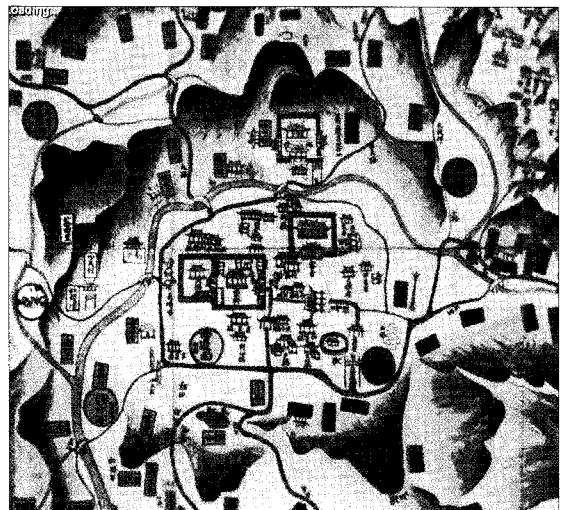
## 1. 담양의 역사

담양(潭陽)이란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다. 『신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담양부도호부조(潭陽都護府條)에 따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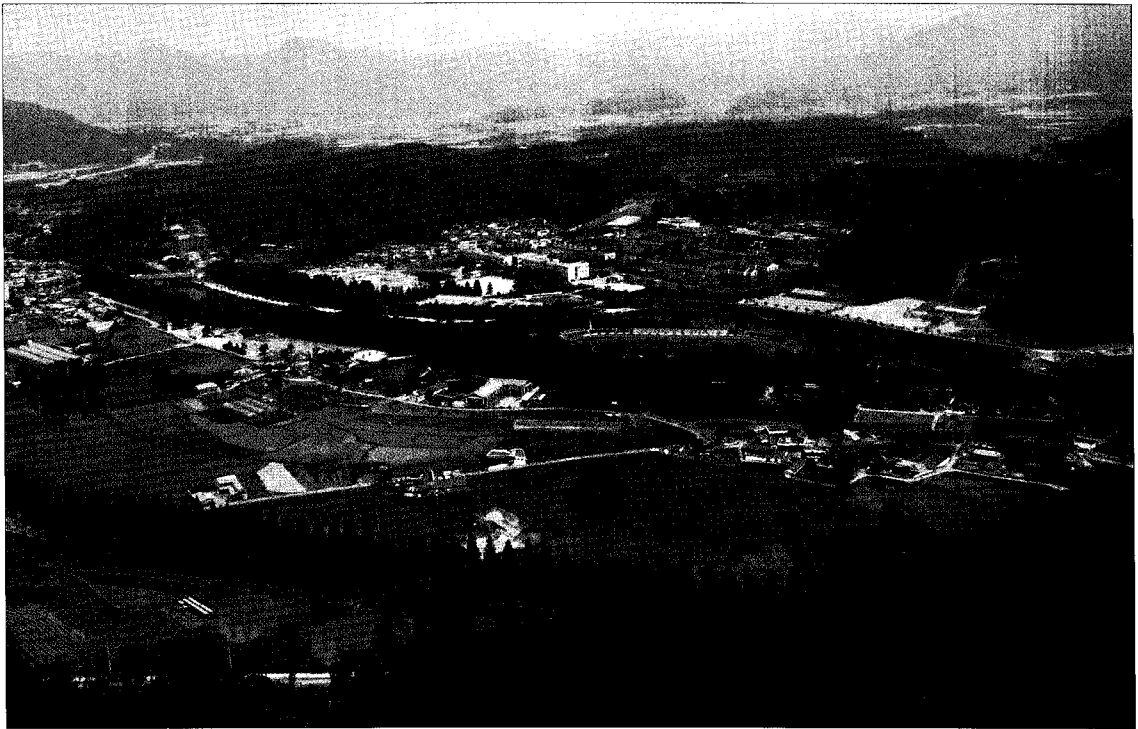
「본래 백제(百濟) 추자해군(秋子兮郡)이었는데 신라 때 추성군(秋成郡)이라 바꾸었고, 고려 성종 14년(995)에 담주도단련사(潭州都團鍊使)를 두었다가 후일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나주에 복속하게 되었다. 명종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공양왕 3년(1391)에 울원현(栗原縣)을 겸임케 하였다. 본조(朝鮮)에 들어와 태조 4년(1395)에 국사(國師) 조구(祖丘)의 고향이라 하여 군(郡)으로 승격시켰다. 공정왕(정종) 즉위1년(1398)에 왕비 김씨의 고향이라 하여 부(府)로 승격시키었다가 태종 13년(1413)에 예(例)에 따라 도호부(都護府)로 삼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빠져있지만 고려 현종 9년(1018) 새로운 군현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재의 명칭인 담양군

이라 고치고 나주목의 속군이 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담양군과 창평현은 남원부의 관할에 속했으며, 1896년 8도제로 환원되자 전라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을 13도 23부 220군으로 개편시 창평군을 담양군으로 병합하고 일부 면을 조정하였으며, 1943년 담양면이 읍으로 승격 한 이후 지금까지 1읍 11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1872년 제작된 담양부지도(담양읍 부분)



〈그림 2〉 담양읍 남산에서 바라본 관방제림

## 2. 담양천과 관방제림 조성

담양은 전라남도 최북단으로 호남정맥을 사이에 두고 전라북도 순창군과 경계를 이룬다. 담양천은 영산강의 최상류에 위치한다. 호남정맥의 용추봉 용소에 발원한 물줄기가 담양읍 중심가를 가로질러 남도 3백리를 유유히 흐르고 있다.

담양은 한자 뜻대로 연못이 많고 양지바른 곳이다. 담양천의 상류에는 1976년에 조성된 담양호가 있다. 유역면적이 6,245ha, 저수량이 6,670만톤으로 영산강의 홍수 조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소중한 시설이다. 1,000년 전 선조들은 〈담양〉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면서 후대에 담양호와 광주호 2개의 거대한 호수가 생길 것을 예측한 것일까?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담양천은 호남정맥의 여러 골짜기에서 합해진 물줄기를 한 번에 보듬으면서 여러 곳에 생채기를 냈다. 특히 S자형의 하천 형태를 이루는 담양읍은 해마다 홍수사태를 났을 것을 뻔하다. 이를 막기 위해 조성된 것이 관방제림(官防堤林)이

다. 담양읍의 북쪽, 담양천의 남쪽 제방에 쌓여진 관방제림 조성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조선 영조 32년(1756)에 발간된 『추성지(秋成誌)』에 보인다.

북천은 용천산에서 흘러내려 담양부의 북쪽 2리를 지나며 창일하여 해마다 홍수가 저서 담양부와의 사이에 있는 60여 호를 휘몰아 사상자가 나오므로 부사 성이성(成以性, 1648년 7월~1650년 1월)이 법을 만들어 매년 봄에는 인근 백성을 출역시켜 제방을 쌓아 이 수해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림 3〉 1934년 관방제 보수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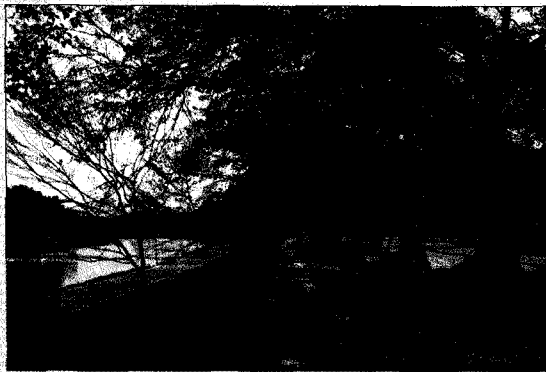
이후 조선 철종 5년(1854) 당시 담양부사 황종림(黃鍾林)이 제방을 보수하고 숲을 조성하였으며, 일제시기인 1934년 홍수로 인해 무너진 관방제림의 제방을 보수하고 나무를 심었다는 중수비가 아직도 남아있



〈그림 4〉 옛 죽물시장 전경



〈그림 5〉 관방제림의 여름



〈그림 6〉 관방제림의 가을



〈그림 7〉 관방제림의 겨울

다. 1980년대에는 후계수를 식재하고 제방 주변의 민가를 정비하기도 하였다.

1974년 전라남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으며, 1991년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관방제림 내에는 푸조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음나무, 개서어나무, 곰의말채 나무, 뱀나무 및 은단풍 등 여러 가지 낙엽성 활엽수들로 이루어졌으며, 나무의 크기도 가슴높이의 줄기둘레가 1m 정도의 것부터 5.3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다. 현재의 나무 수령은 최고 400여년에서 15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간은 길이가 1.4km이며, 담양읍에 조성되어 있는 제방 총길이는 약 4km 정도 된다.

지난 400여년 동안 관방제림은 오랜 세월 담양 군민과 더불어 살아오면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한 자연문화유산으로 정서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기에 결성된 진소조합(眞梳組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담양의 모든 마을에서

는 바구니, 소쿠리 등을 수레나 손수 등에 지고 관방제림 하천 고수부지에 서는 죽물시장으로 나르곤 했다. 관방제림은 담양읍의 남산리, 객사리, 담주리, 천변리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활기차게 형성되어 거래가 많았던 죽물시장은 지금은 장이 서지 않지만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의 애환이 깃든 곳으로 관방제림은 죽물시장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담양의 명물이었다. 관방제림은 2004년 생명의 숲과 산림청, 유한킴벌리가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숲 부문 우수상과 전국 대상을 차지한 명품숲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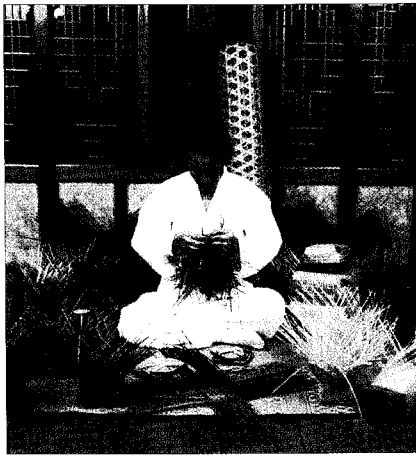
### 3. 관방제림과 함께 한 문화자원

#### 죽녹원(竹綠苑)

담양은 대나무의 고장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대나무는 바구니, 소쿠리의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다기세트, 악세사리 등 대나무를 재료로 가공하여 만든 죽제품이 주 생산품이었



〈그림 8〉 죽녹원 '대통운수길'



〈그림 9〉 채상장 기능보유자 서한규

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나무의 부가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약효, 식용 및 대나무 그 자체를 활용하고 고소득 작물로 여겨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1970년대까지 대나무밭을 생금밭(生金田)으로 불리울 만큼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으나 1980년대 이후 플라스틱과 중국산 죽제품에 밀려 애물단지가 되었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바로 죽녹원이다.

2004년 대나무축제 기간 관광객을 위한 대나무숲 체험공간으로 처음 산책길을 조성한 이후 5만여 평의 부지에 운수대통길, 사람이 변치 않는 길, 죽마고우길, 선비의 길, 철학자의 길 등 여덟 개의 테마 숲길을 조성하고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죽녹원 안의 생태연못을 거닐다 보면 대나무에서 품어 나오는 음이온과 차가운 물이 결합하여 뇌파의 활동을 완화시키고 알파파가 폭발적으로 생산되어 기분을 맑게 한다.

죽녹원 안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전수교육관이 들어서 있다. 채상장 기능보유자 서한규씨는 지난 60여 년간을 대나무 죽공예에 종사하신 장인으로 대을을 1mm 이하로 잘게 쪼개어 빨강, 노랑, 파랑 등 천연염색으로 채색하여 짜 만든 대나무 상자로 현재는 전수조교인 딸과 함께 현대적 감각의 다양한 작품을 생산하고 있다.

### 담양읍석당간 (潭陽邑石幢竿)

담양읍에서 전라북도 순창으로 향하는 옛 국도 29호선 종대삼거리에는 고려시대에 세워진 보물 제505호 담양읍석당간과 보물 제506호 담양읍오층 석탑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다.

석당간은 원래 사찰에서 야외법회를 열 때 부처

님의 탱화를 걸게끔 만든 종대이다. 따라서 석당간은 현재의 위치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담양읍 석당간은 추성지의 기록을 보면 이와는 달리 풍수지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즉 담양의 풍수지리가 행주형(行舟形)이라 돛대와 사공이 필요한 바 석당간이 돛대의 역할을 하였으며, 석당간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사공을 놓은바 그것이 천변리석인상(문화재자료 제21호)이다. 그리하여 추성지에는 석당간을 석도(石棹)라 기록하고 있다. 석당간 옆에는 석당간 중수비가 세워져 있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10〉 담양읍석당간

「석도를 세운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대개 읍을 처음 설치한 때부터이다. 갑인년에 큰바람으로 꺾여 나무로 대신 세웠다가 작년 봄에 또 훼손되

어 중건한 것이 기해 3월이다. 송정기원후 4기해 3월 일 부사

홍기십 기록하다(石棹之立年不可攷 蓋自設邑始幾 年至甲寅爲大風折以木代立昨春 又頽今則如初重建歲己亥三月也 崇禎紀元後四己亥三月日知府洪耆燮記)」。



(그림 11) 석당간 상륜부. 풍경이 보인다.

이 기록으로 보아 조선 헌종 5년(1839)에 큰바람으로 쓰러진 것을 나무로 대신 세웠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석당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랫부분은 석조, 윗부분은 철조이며, 상단부분에 원형을 만들고 삼지창 모양의 철침을 세웠으며, 풍경 같은 방울모양의 장식이 원래는 3개이었으나 현재는 하나만 남아 있다.

### 담양읍오층석탑(潭陽邑五層石塔)

담양읍오층석탑은 담양읍석당간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m 전방의 평지가 전개되는데 광활한 지역에 경영된 가람(伽藍)으로 짐작된 들 가운데에 절터의 흔적은 찾아볼 길이 없고 다만 이 오층석탑만 남아 있다. 탑의 형태는 1층 기단에 오층석탑으로 일반형과 약간 다른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단부 지대석은 1석으로 구성하였고 중석은 중앙에 탕주(榜柱)가 생략된 채 4개의 모서리 기둥이 배치되었는데 특히 기단부 높이가 다른 오층석탑에 비해 매우 낮게 조성되었음이 특이하다. 기단부 갑석은 아주 경미한 경사를 보였고 약간 두꺼운 편이며 그 밑에 부연(附椽)이 있다.

갑석 상면 중앙에는 역시 일반형과 같이 각호형 물딩을 주어 상층 초층 옥신을 받게 했다. 그러나 일반형과 특이한 것은 기단부 갑석 폭의 길이가 옥개석 폭의 길이보다 좁다. 탑신부는 옥신과 옥개가 각 1석인데 여기 또 다른 이형이 조출된 점은 옥개석과 옥신사이에 괴임을 별석(別石)으로 하여 옥신을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식은 백제의 영역 내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제계 양식의 조형인 정림사지오층석담(定林寺址五層石塔)을 모방하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1층 탑신부는 다른 조식이 없이 4개의 모서리 기둥이 있고 옥개석은 두꺼운 편이며 처마는 경사졌고 전각에 이르러 가운데 반전을 보였다. 또한 처마 밑은 수평에다 옥개석 받침은 3단으로 5층까지 동일하다. 2층 이상은 알맞게 체감되어 오층석탑이긴 하나 펍 안전감을 준다.

상륜부는 모두 유실되어 아무것도 없다. 지난 2000년 담양읍오층석탑으로부터 약 130m 떨어진 국도2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시 실시된 발굴조사때에는 '乾德六年(968)', '潭州'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와 통일신라시대 자기편 등이 발견되는 등 오층석탑 주변은 옛 담양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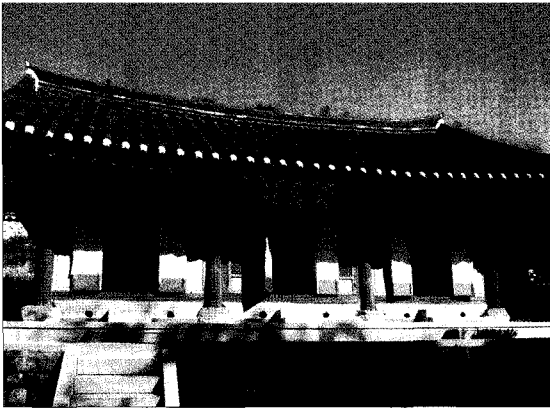


(그림 12) 담양읍오층석탑

### 담양향교(潭陽鄉校)

담양향교는 태조7년(1398)에 창건하여 수차 중수를 거듭하였고 정조18년(1794) 부사 이현유가 여러 집사와 협력 중건하였으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이곳에는 5성 2천과 우리나라의 18천 등 모두 5위비를 봉안하고 있다.

향교의 규모는 대성전(大成殿), 동·서무(東·西廡), 내삼문(內三門), 명륜당(明倫堂), 동·서재(東·西齋), 외삼문(外三門), 고직사(庫直舍) 등이 있으며 외삼문 밖 150여m 거리에 하마비가 있으나 홍살문은 없다. 그 외에도 옥영재, 사마재, 전사청 등은 고종31년(1894) 이후에 허물어져 없어졌다.



〈그림 13〉 담양향교 대성전

건물들의 배치를 보면 남북방향으로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이 교당부, 문묘부 순으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하고 있는 경사지 건축이며 동·서무는 좌우대칭의 배치를 하고 있다.

대성전의 건축형식을 보면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약 130cm 높이의 석축기단을 쌓고 자연석 담벽 주춧돌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에 따라 배흘림과 민흘림을 각각 보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흘처마이며 바람막이 판이 설치되어 있다.

명륜당은 정면 7칸, 측면 3칸의 루(樓) 건물로 정면은 약 280cm 높이의 2중기단으로 쌓고 자연석의 담벽 주춧돌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전면의 루 아래에는 살(箭)을 설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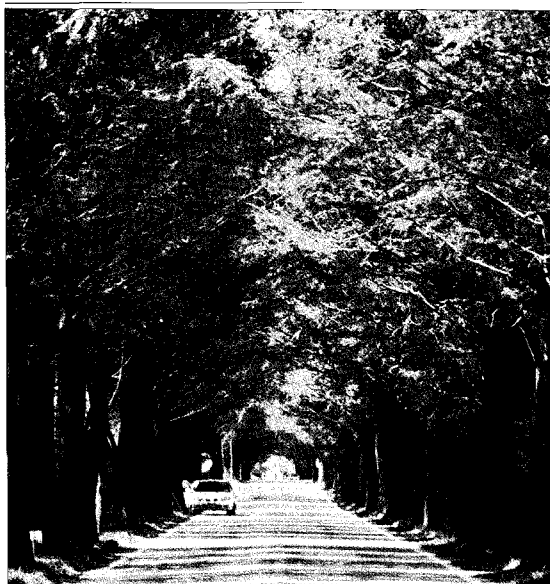
〈그림 14〉 담양향교 명륜당

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루 위의 좌우 뒷간에 온돌방이 있는 것과 루 아래의 벽을 뚫어 만든 합실 아궁이는 특이하다. 맞배지붕에 흘처마이며 바람막이 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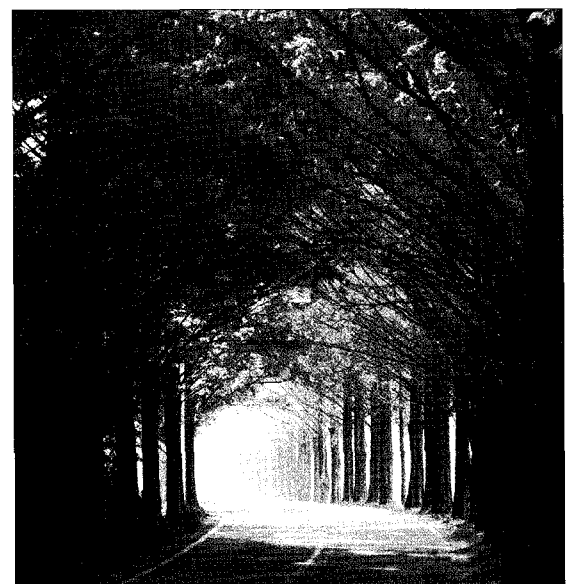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반듯하고 편평한 주춧돌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민흘림과 배흘림이 모두 보인다. 솟을문인 내삼문에 오르는 계단은 약 4m의 높이이며 내삼문 좌우에는 200여년된 은행나무가 있다.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담양 읍내를 들어서서 순창으로 달리는 기분은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가로수길을 만난다. 바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림 15〉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봄)



〈그림 16〉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가을)

전국 제일의 가로수길로 설명되는 이 숲길은 도로변을 터 넓처럼 장식하고 있어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숲이 뽀뽀하게 우겨져 마치 시원한 숲속 동굴을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고, 가을이 되면 갈색 낙엽과 굵직한 가로수 몸통의 나열이 마치 동화속 병정들의 열병식을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담양의 명물이 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지친 나그네를 위로라도 하듯 심신을 맑게 해주는 마술같은 길이다. 1974년 당시 내무부로부터 전국 시범 가로수로 지정되었다.

2002년 산림청과 생명의숲, 유한킴벌리가 주최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2006년에는 건설교통부와 주최한 '아름다운 거리 100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영화 '가을로'의 엔딩 장면과 '화려한 휴가'의 오프닝 장면에 등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담양읍을 관통하고 있는 담양천은 최고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관방제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등등. 이들이 구성되어 현재의 아름다움을 갖기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도 필요했지만 불과 40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와!'라는 외마디 감탄사를 내뱉게 만들고 무한한 추억거리를 선사하기도 한다.

관방제림은 전국 최고의 마을숲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노거수 아래 위험주택 매입사업과 매입부지에 대한 마을숲 확대사업이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결됨으로써 4만평의 거대한 숲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무더웠던 그리고 집중호우가 잦았던 여름도 지나갔다. 이제는 죽녹원만이 제 색깔을 유지할 것이다. 낙엽으로 산책로를 뒤덮는 관방제림, 붉은 잎사귀를 눈처럼 뿌리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강과 숲이 주는 즐거움을 맘껏 누리자. ●



(그림 17) 관방제림 마을숲 확대 조감도